치주질환환자에서 라미네이트 수복 후 15년 임상적 후향 연구

대구예스타치과
주상돈*, 최유림

서론 : 이 연구는 치주 질환으로 인해 치간 이개가 발생한 경우, 치주치료를 시행한 다음, 치간이개를 치료하기 위해 라미네이트 수복 후 , 15년간 생존율을 구하여 위험요소와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의원에서 치주질환환자에 있어서 2008년부터 라미네이트를 시술한 52개의 15년간 장기간 추적을 통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바이다.

결론 : 1. 치주가 건강하지 못한 환자에게 치주치료와 함께 시행한 라미네이트의 15년 생존율은 96.2%이며, 치주가 건강한 환자보다 생존율이 높았다.
2. 남녀에 따른 성공률, 나이에 따른 성공률 차이는 없었다.
3. 이러한 높은 성공률은 세라믹의 발달, 접착치의학 발달과 더불에 구강스캐너의 도입으로 법랑질을 최대한 보전과 더불어 치아의 생리적 동요도로 인한 충격방지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4. 라미네이트가 상악전치 설면을 보존함으로써 술후 치간이개 가능성을 줄였다.
5. 구강스캐너의 발달로 과거에 인상채득의 어려움으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지못하는 경우가 없어짐으로써 구강스캐너의 발달로 치주질환 환자에서 라미네이트 치료영역이 새로 확장되었다.
6. 라미네이트치료후 치간이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칫솔질 교육 및 정기검사가 필수적이다.